

신남방 ·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수출판로 개척

도·경진원, 'JB-FAIR' 전주·하노이·뉴델리 등서 동시 개최 베트남·인도 진출 희망 50개 업체 대상 화상상담기 등 제공 행사기간동안 상담 800건 실시·참여업체 16건 화상미팅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전북도의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JB-FAIR(전북우수상품온라인박람회)를 4~5일 양일간 전주 더메이호텔,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 인도 뉴델리 오베로호텔에서 동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베트남-인도 3개국 공동개최 박람회, 베트남과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50개 업체에 대해 바이어 발굴 및 미팅알선, 상담부스, 화상상담기, 샘플전시관, 통역 등을 일체 제공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보다 지리적인 제약이 줄어들다는 장점이 있다. 경진원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기존의 한국-베트남 2개국 행사를 인도까지 확대했다. 상담은 행사기간 동안 총 800건을 실시했다. 참여업체는 하루 8건씩, 2일간 총 16건의 화상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위해 경진원은 총 617개사의 신규 바이어를 발굴했다. 행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뉴델리에 구축한 해외통상거점센터와 바이어들을 활용해 추가적인 온라인 상담미팅 알선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진원은 사후관리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의사소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전북도의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JB-FAIR(전북우수상품온라인박람회)를 4~5일 양일간 전주 더메이호텔 등서 열고 있다.

통과 계약 진행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등

전북도 관계기관장 11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를 맞아 화상상담과 온라인 행사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만큼, 경진

원은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수출지원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상협 "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진심으로 환영"

지역상공인들이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받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전라북도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그동안 숏한 위기와 좌절을 견디며 탄소산업을 14년간 묵심으로 밀고 온 전북도의 패기"라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흥원 설립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공조를 통해 값진 성과를 일궈낸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선홍 회장은 "이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서는 날카로운 지역상공인 모두는 탄소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일 도내 30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기 애로사항 청취

전북중기청, 30개 지원기관·협단체와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추축했던 도내 3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4일 도내 30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기관별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지역기업의 경영애로와 정부규제 등을 발굴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내 정책소통기구로 매월 전북중기청에서 개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7월 이후 줄곧 서면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의 1단계 완화방침에 따라 급변 회의를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한 대면회의로 전환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 화상상담 및 융자지원,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수출 및 라이브커머스 등 기관별 코로나 19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지원정책 위주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청년기업인 '아크치킨' 박현수 대표는 "건물 내 채워 오피스 형태로 공유주방을 조성해 창업공간부터 집까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창업기업을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코로나19상황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무역업 컨설팅과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코렘' 김산영 대표는 "지자체 등의 수출지원사업이 B2B 현장에서는 지원방식과 내용에 있어 다소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지원협의회에서는 두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2주 이내에 자금, 인력, 수출, 판로 등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별도 가동해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원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방조제 준공 10년,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총력

새만금개발청, 나무심기 행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맞아 새만금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린인프라(친환경경관시설)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일 새만금홍보관 앞 야생화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도청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으며, 사계절미와 해송 등 수목 500여본을 식재했다.

새만금 해안 방재림과 가로 숲 조성 주요종인 해송은 해풍과 염분에 강한 수목으로 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나

무심기 수종으로 선정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이 해안 매립지의 특수성(연중 강한 해풍과 염분 등)으로 인해 식재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수립해 공원, 녹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새만금 에코슈벨트, 동서도로 가로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녹화도로와 숲·녹지로 연결된 아름다운 친환경 수변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별통, 초보자도 쉽게 관리 가능

농진청,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화분매개용 별통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별통이 개발돼 별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손쉽게 별통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쪼갬과 뒤엎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분매개용 스마트 별통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한해 시설작물의 수분용으로 사용된 화분매개곤충은 48만 봉군(벌무리)에 이르며, 시설재배농가에서의 화분매개곤충 사용률은 60%에 달한다. 벌의 활동은 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별통 내·외부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화분매개곤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화분매개용 스마트

별통은 별통 내부의 환경과 벌의 행동을 관찰해 벌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별통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의 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하고, 벌의 형태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별통 출입 시 벌의 활동을 자동으로 측정한다.

연구진이 벌의 출입 활동을 측정 한 결과, 실제 눈으로 관찰한 값과 비슷한 수준인 94.3%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값을 이용해 화분매개하는 벌의 수를 계산하면 작물 화분매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통 내부에 각종 센서(감지기)를 설치해 먹이(대용화분, 당액), 내부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리함으로써 벌의 활동량도 늘

릴 수 있다.

비닐하우스가 고온일 때는 센서와 연동된 환기팬을 가동해 별통 내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기존 별통보다 벌의 활동은 2.3배, 작물 수증량은 1.3배 높일 수 있다.

별통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별통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혼산사업과 남성희 과장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별통에 도입해 효율적으로 화분매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스마트 팜 기술과 융복합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스마트 양봉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소상공과 상생협력 추진 '결실'

국민연금,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서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0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11월 첫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하고, 동반성장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수상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공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자발적 상생협력을 실현하

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작년 6월 NPS+ IT R&D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연금상담 창구 구축,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개선 등 11개의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전국 109개 지사에서는 '1사 1시장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후원금'을 활용해 성과공유제 운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비용제공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신년준들에게 창업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자활근로 흡수에 등 8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작년 하반기에 열린 전북지역 취업박람회에서는 '국민연금 협력사 전문 채용관'을 운영해 9개 업체 대상으로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최우수기관 선정' 및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공단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사업을 강화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이정임 과장 대통령 표창 '영예'

전북도농업기술원(박경숙 원장) 자원경영과 이정임 과장은 4일 '2020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여된 대통령 표창은 전국의 농촌지도자 공무원에 대상으로 농업·농촌지원의 가치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이 큰 공직자에게 주어졌다.

이정임 과장은 1990년부터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위해 농업인 농식품 가공창업(107개소) 및 연구성과 현장보급(30개소), 농업·농촌지원 연계 융복합 기술지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164개소), 한국형 식량관광 활성화 지원(92개소), 농촌여성지도자 및 전문지도연구육성(19개회 8,650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및 농촌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익산=정영원 기자



자산관리공 전북본부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기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승)는 4일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동참하고자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덕진구 사랑의올타리자원봉사단(회장 정은영)에 기탁했다.

기탁된 상품은 매년 취약계층의 든든한 겨울나기 준비를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쓰이며, 어려운 이웃 170여 세대를 지원해 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최낙승 본부장은 "지역사회를 살피고, 지역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가 나누며 이웃들과 공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했다. 이어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견인, 수요자 중심의 대응되는 감사행정 구현,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